

“전경기 출장”

KIA 최희섭의 시즌 각오 ... “느낌 좋아 머리 계속 기를 겁니다”



‘전 경기 출장’을 위해 최희섭이 긴 머리를 휘날린다.

KIA 타이거즈 최희섭이 올 시즌 내 세운 목표는 ‘전 경기 출장’이다.

‘빅초이’라는 애칭에 맞는 홈런이나 타점보다 최희섭이 우선 언급하는 것은 ‘전경기 출장’이다. 그동안 팀의 주축선수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반영된 목표이자 또 꾸준히 출전을 하다 보면 팀이 원하는 성적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목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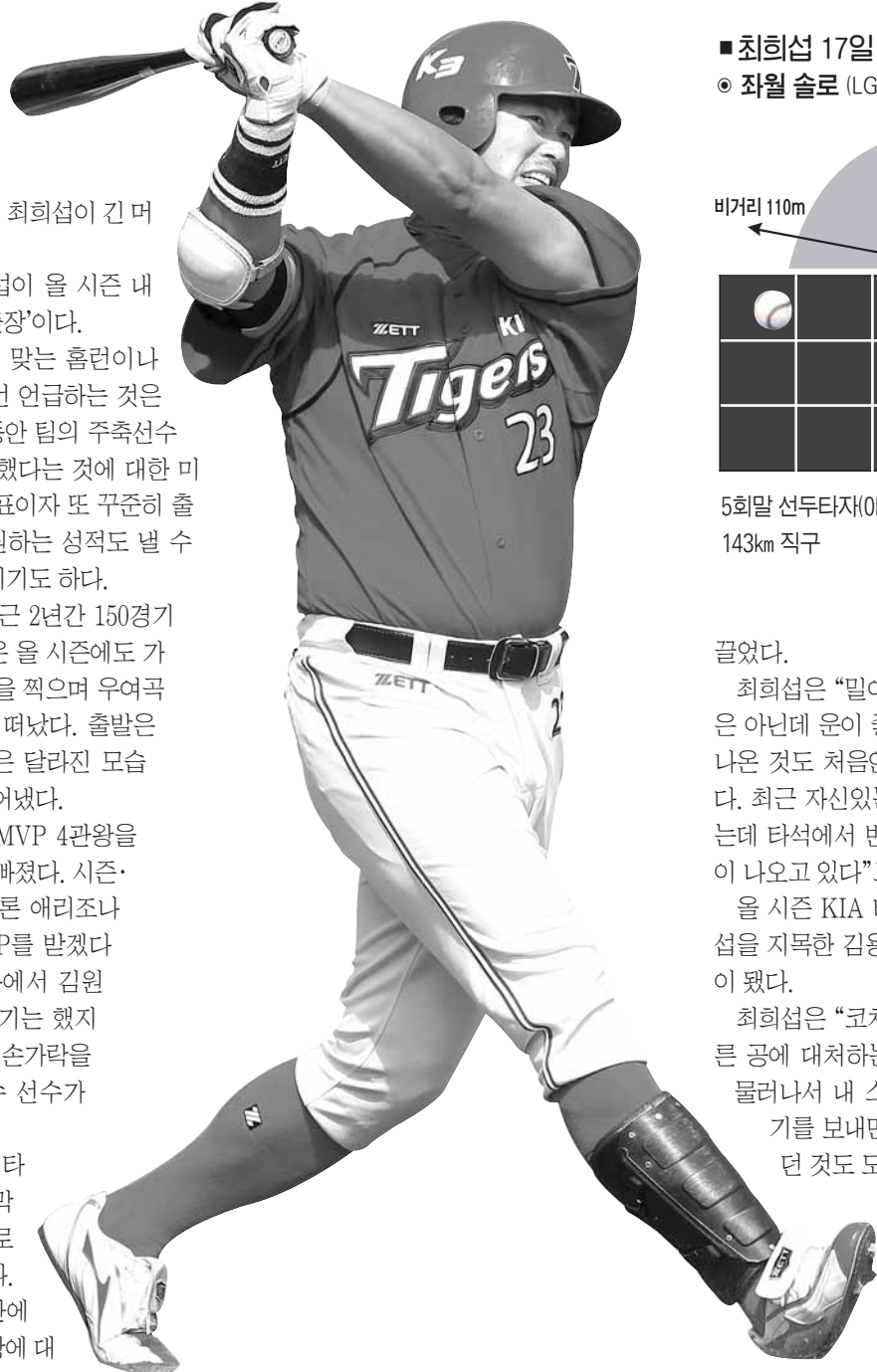
부상과 부진 속에 최근 2년간 150경기 출전에 그쳤던 최희섭은 올 시즌에도 가장 마지막에 계약 도장을 찍으며 우여곡절 끝에 스프링캠프를 떠났다.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최희섭은 달라진 모습으로 우려의 시선을 씻어냈다.

최희섭은 캠프에서 MVP 4관왕을 외치며 훈련 삼매경에 빠졌다. 시즌·한국시리즈 MVP는 물론 에리조나와 오키나와 캠프 MVP를 받았다는 각오였다. 에리조나에서 김원섭에게 MVP를 넘겨주는 했지만 선동열 감독이 엄지 손가락을 내밀 정도로 캠프 우수 선수가 되며 팀을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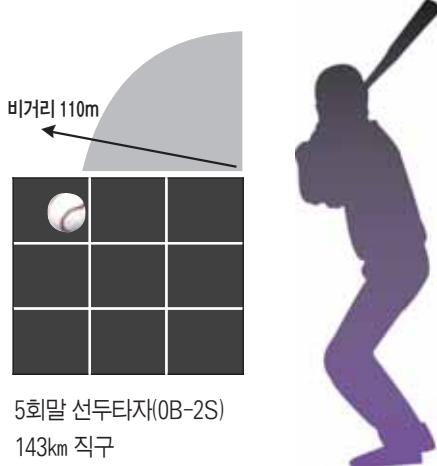
올 시즌 발발이 5번 타자가 된 최희섭은 개막 후에는 조용한 활약으로 팀의 1위 행진을 도왔다. 그리고 개막 10경기 만에 홈런포를 날리면서 한방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다.

최희섭은 지난 17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좌측 타장을 넘기는 시즌 마수절이 홈런을 기록했다.

팀이 5-4까지 추격당한 상황에서 나온 값진 홈런이자 K3 자동차가 경품으로 걸려 있던 행운의 홈런이기도 했다. 올 시즌 KIA



■ 최희섭 17일 홈런
● 좌월 솔로 (LG투수 임찬규)



5회말 선두타자(0B-2S)
143km 직구

끝났다.

최희섭은 “밀어진 홈런이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운이 좋았다. 홈런이 이렇게 늦게 나온 것도 처음인데 이제야 마음이 개운하다. 최근 자신있는 스윙이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타석에서 변화를 준 뒤 시원하게 스윙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KIA 타선의 키 플레이어 최희섭을 지목한 김용달 타격 코치의 조언이 힘이 됐다.

최희섭은 “코치님이 나이도 있고 몸쪽 빠른 공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뒤로 물러나서 내 스윙을 하라고 하셨다. 휴식기를 보내면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던 것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당분간 휘날리는 긴 머리로 고수할 예정이다.

최희섭은 “미신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9년 막바지에 머리를 길렀는데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이 났다. 그때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있다. 올해는 부상이 없이 2009년 같은 활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홈런 치고 차 받은 최희섭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어”

▲올 뻘했어요=연구리 통증으로 엑스레이를 찍은 나지완, 처음에 갈비뼈 골절인 것 같다고 해서 놀랐더라. 정밀 검진을 해보니 뼈가 겹쳐 찍혔더라.

▲공이 사라졌어요=17일 경기에서 오지환의 플라이 타구를 놓쳤던 김선빈, 공이 마지막에 보이더라.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뜬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는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있던 공이 어디를 가겠냐=김선빈의 얘기를 들은 김상훈, 정면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옆으로 비켜서서 공을 잡으라며,

▲분명 직접 던진다고 하셨잖아요?=KIA 프런트, 배팅볼 투수를 자처한 이순철 수석 코치를 보며, 특유의 무표정으로 공을 던지고 계신다고 웃으며,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네=권윤민 스카우트로부터 홈런 축하 인사를 받은 최희섭, 2년 연속 삭감으로 1억5000만원 까지 연봉이 하락한 최희섭은 17일 무등경기장에 신설된 K3 홈런존을 세 번째 넘기면서 부상으로 자동차를 받았다.

▲오늘도 주냐?=LG 김기태 감독, K3 홈런존을 가리키며, 자동차 주인공이 탄생하면서 앞으로는 금 3등을 상품으로 준다.

▲그럼 계속 해라=선동열 감독이 덕아웃에 인사를 하러 온 최희섭을 CMB 해설위원을 보고, 흥 위원이 두 경기 중계했는데 모두 승리를 했다고 하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배수의 진’ 내일 흠뻑 승 노린다

고양Hi FC와 5라운드



광주 FC가 배수의 진을 치고 흠뻑 승을 노린다. 광주FC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고양Hi FC와 K리그 챌린지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주말 상주 상무와의 10라운드를 앞당겨 치렀던 광주는 1-2패를 당하며 시즌 전적이 1승4패가 됐다. 승점 3점으로 중간 순위 7위.

홈에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광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최하위 고양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린다.

지난 상주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패를 기록했지만 광주의 경기력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의 공격을 책임져야 할 김준엽, 안동현, 루시오, 임선영 등이 골맛을 보는 등 지난 안양전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수비라인이 형성됐고 역습을 통한 공격력의 날카로움이 더해지고 있다.

물론 공격진과 미드필드의 움직임에 비해 불안한 수비 조직력은 아쉬움. 안방에서 만나게 된 고양은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무장한 팀이다. 광주의 안정적인 수비라인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부상선수들의 복귀가 이뤄진다.

광주의 허리 김은선과 수문장 윤기해가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부상으로 박병주, 마철준, 정우인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빠져있는 광주로서는 반가운 복귀다.

고양은 용병 알렉스와 K리그 경력이 풍부한 ‘해결사’ 이광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진상수, 윤동현과 함께 공격의 세밀함을 더할 것으로 보여 광주 수비진의 집중력이 절실하다.

이번 경기의 키 플레이어는 임선영이다. 광주 공격의 파괴력 강화의 임무를 맡은 임선영은 지난 상주전에서 재치있는 드리블과 날카로운 공간 침투에 이어 강력한 슈팅을 선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다.

후반 25분에는 루시오의 도움을 받아 시즌 첫 골을 터트리며 본격적인 골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는 루시오의 안정적인 볼 키핑과 함께 안동현의 드리블, 김준엽, 임선영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양전에서

는 반드시 시즌 흠뻑 승을 관두에게 안겨주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일 해남군 우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영암군팀.

보성 게이트볼·장성 궁도 1위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성료 해남서 22개 시·군 1700명 참가

제8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부문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 17일 해남에서 22개 시·군 만 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1700명이 참가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

해남군 생활체육회와 전남 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그라운드골프와 게이트볼을 비롯한 궁도, 정구, 등산, 탁구, 생활체육, 배드민턴 등 8개 경기가 진행됐다.

보성이 게이트볼 1위를 기록했으며 장성

은 궁도, 광양은 그라운드 골프, 화순은 등산 종목 정상에 올랐다. 목포(배드민턴), 완도(정구), 구례(탁구), 영암(생활체육)도 우승을 차지했다. 레크리에이션에서는 담양·해남·함평·완도·신안으로 구성된 제3조가 1위를 했다.

또 김종채(게이트볼)·나종수(궁도)·박연순(생활체육)·박한수(그라운드골프)·박준상(게이트볼)·박계수(탁구)·안병태(배드민턴)·한금옥(등산)·전복실(정구) 어르신 등 종목·개최지 최고령자에게는 전라남도지사

와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 생활체육 회장 명의의 건강상이 수여됐다.

보성이 게이트볼 1위를 기록했으며 장성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내일 등판

볼티모어전 오전 8시 5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괴물’ 좌완 류현진(26)이 예정대로 20일(이하 한국시간)에 4번째 선발 등판을 한다.



메이저리그 홈페이는 당초 류현진을 21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 선발투수로 예고했으나 하루만인 18일 이를 수정해 20일 오전 8시 5분 시작하는 볼티모어전 선발 투수로 류현진을 올려놨다.

이로써 류현진은 예정대로 우완 제이슨 해밀과 선발로 맞대결을 펼친다.

21일에는 원래대로 조시 벤텔이 등판한다. 돈 매터리 다저스 감독은 당초 20일에 류현진을 선발로 등판시킬 예정이라고 말해왔다. 다저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예고돼 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실수로 잠시 혼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저스는 현재 좌완투수 3명(클레이턴 커쇼, 류현진, 크리스 카푸아노), 우완투수 2명(조시 벤텔, 채드 빌링슬리)으로 선발진을 꾸려 시즌을 이어 가고 있다.

만약 21일 경기에 나섰더라면 류현진은 대만 출신의 좌완 에이스 천웨이인과 선발 대결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둘의 양국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은 다음으로 미루지게 됐다.

류현진은 다음으로 미루지게 됐다.

/연합뉴스